

동아시아의 번역된 근대:

‘개인’과 ‘사회’의 번역과 수용

양세욱*

【요약】

근대 동아시아는 번역을 통해 서양을 이해하고 근대라는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였다. 서양의 학문과 사상, 제도 등을 담은 생소한 개념어를 어떻게 번역하여 보급할 것인가의 문제는 당시 동아시아 지식인들에게 주어진 절박한 과제였으며, 번역은 동아시아에서 근대를 형성해가는 중요한 과정이자 방법이었다. 이렇게 동아시아의 근대는 ‘번역된 근대(translated modernity)’였다. 이 글은 individual과 society가 ‘개인(個人)’과 ‘사회(社會)’로 각각 번역되고 수용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번역된 근대’로서의 동아시아 근대의 풍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동아시아에서 근대는 풍문으로 먼저 왔으므로, 서양 언어의 번역은 이중의 고통을 수반하였다. 일차적인 어려움은 믿고 의지할 사전이 없었다는 사실에서 초래되었지만, 보다 근본적인 어려움은 번역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현상 자체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는 데에 있었다. 즉 있는 현실이 아니라 있어야 하는 현실의 개념들을 대상으로 번역 작업을 진행해야 했다는 것이었다. ‘개인’과 ‘사회’의 예를 통해 있는 현실이 아니라 있어야 하는 현실의 개념들을 대상으로 다듬어진 번역어들이 만들어내는 의미의 굴절과 파문을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번역된 근대, 번역어, 동아시아, 언어접촉, 개인, 사회

* 인제대학교 중국학부

I. 머리말

동아시아에서 근대는 풍문으로 먼저 왔다. 근대는 무엇보다 ‘근대’라는 말 자체였다.¹⁾ 중국과 일본은 번역이라는 지적 작업을 통해 서양을 이해하고 근대라는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였다. 번역은 동아시아에서 근대를 형성해가는 중요한 과정이자 방법이었다. 번역 과정에서 중국과 일본은 서로를 참조하고 영향을 주고받았다. 한국은 때로는 중국을 통해, 대부분은 일본이라는 필터를 통해 근대를 수용하였다. 이렇게 동아시아의 근대는 ‘번역된 근대(translated modernity)’였다.

서양의 학문이나 사상, 제도, 지식 체계 등을 담은 생소한 개념어를 어떻게 번역하여 보급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당시 동아시아 지식인들에게 주어진 절박한 과제였다. 서양에서 건너온 새로운 개념을 담은 어휘들을 한자어로 번역하는 일은 중국과 일본이 담당하였다. 이러한 근대 번역어의 생산은 이탈리아 선교사 마테오 리치의 입국과 함께 명말의 중국에서 시작되었고 백년금교(百年禁教)가 해제되어 개신교 선교사들이 번역과 사전편찬에 종사했던 19세기 초반까지 이어졌으나 중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망각되어 갔다. 한편 남만학(南蠻學)·난학(蘭學)·영학(英學)으로 이어지는 일본의 양학(洋學) 열풍 속에서 유례없이 많은 번역어들이 만들어졌다. 일본은 번역어의 생산 과정에서 중국의 선례(先例)들을 참고하였다. 이렇게 번역어의 생산 과정에서 중국과 일본은 서로를 참조하고 영향을 주고받았다.

1) ‘근대’가 ‘가까운 시대, 요즘, 최근’ 등과 같은 일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modern’의 번역어로 ‘(고대나 중세에 대비하여) 중세에 이어지는 시대와 그 시대의 사건, 인물, 작가 등을 가리키는 말’(『옥스퍼드영한사전』)로 쓰이기 시작한 최초의 용례는 1873년에 아리마사학교(有馬私學校)에서 펴낸 『영화장중자전(英和掌中字典)』이다.(柳父章 1982/2011: 67) 중국에서 근대는 보다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아편전쟁(1840)부터 5·4운동(1919) 때까지를 가리킨다. 5·4운동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수립(1949) 이전까지는 ‘현대(現代)’, 그 이후는 ‘당대(當代)’로 구분한다.

한국은 번역어의 생산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중국과 일본에서 진행된 성과들에 무임승차에 가까운 편승을 하였다. 이 번역어들은 한자와 동아시아 공동문어를 기반으로 국경을 넘나들며 새로운 어휘체계를 형성하였다.

번역이 중국에서 이루어졌는지 일본에서 이루어졌는지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중국과 일본은 서로를 참조하고 영향을 주고받았으므로, 번역어의 산지(產地)를 정확히 밝혀내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드물지 않다. 중국에서 이루어졌든 일본에서 이루어졌든 언어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번역은 동아시아의 공동 문자였던 한자와 중국 고전을 매개로 진행된 작업이었다. 그러나 언어 밖에서 일본의 번역어는 권력이었다. 근대 번역어의 생산 과정에서 자신들이 망각한 이전의 번역 성과에 대한 중국의 뒤늦은 재발견과 한국의 무임승차는 그 대가를 치렀고, 일본은 그 보상을 받았다.²⁾ 19세기 중엽 이후 형성된 일본의 번역어는 20세기를 넘어서면서 한국과 중국에 사상과 정보를 전파하는 매체에 그치지 않고 동아시아의 문화와 정치 영역을 조종하기 시작했다. 근대가 화려한 전망 뒤에 깊은 그늘을 숨기고 있듯, 근대 번역어도 언어의 안과 밖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중적인 성격을 지녔다.

근대를 맞이하는 중국과 일본의 상반된 입장은 진화(evolution)를 수용하는 태도에서 극적으로 드러난다. 일본에서는 메이로쿠사(明六社)의 일원으로 메이지 시대의 교육가이자 정치가, 사상가였던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 1836~1916)를 중심으로 진화론의 사회학적 변형인 스펜서(Herbert Spencer 1820~1903)의 사회진화론(Social Darwinism)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전파하였다. 일본은 사회진화론에서 약소국에 대한 침탈을 합리화할 제국의 논리를 발견하였다. 중국에서 사회진화론은 토마스 헉슬리(Thomas Henry Huxley

2) 뒤이은 동아시아 역사에서 일본의 화려한 등장과 중국과 한국의 몰락 원인을 번역으로 한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번역을 무시하고 그 원인을 찾는 일 또한 핵심을 비껴날 수밖에 없다. 일본의 아시아 침략의 이념적 기초를 닦았다고 평가받는 후쿠자와 유키치가 ‘문명’과 ‘사회’, ‘자유’ 등 중요한 번역어를 다듬어 낸 열렬한 번역가이기도 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1825~1895)의 『진화와 윤리(Evolution and Ethics)』(1893)를 엄복(嚴復 1853~1921)이 『천연론(天演論)』(1898)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하면서 소개되었다.³⁾ 천부적 권리로서 자유를 주창하는 스펜서의 방임적 자유주의와 달리 헉슬리는 자기절제의 도덕을 강조하는 온건한 자유주의를 주장하였다. 하지만 엄복은 번역 원본과는 달리 헉슬리보다 스펜서의 주장을 옹호함으로써 적자생존, 우생열패의 신화가 지배하는 근대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냈다. 진화를 대하는 일본과 중국의 입장 차이는 번역에서도 드러난다. 일본이 긍정적인 어감의 ‘진화(進化)’를 번역어로 선택한 반면, 엄복은 ‘우주가 전개된다’는 의미의 ‘천연(天演)’이라는 중립적인 듯 하면서도 다분히 위압적인 번역어를 선택하였다. ‘천연’이 ‘진화’에 밀려 잊혀진 번역어가 되어가는 과정은 중국과 일본의 뒤바뀐 처지와 대응한다.

이 글을 통해 individual과 society가 ‘개인(個人)’과 ‘사회(社會)’로 각각 번역되고 수용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번역된 근대’로서의 동아시아 근대 형성의 면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 글은 서양이 원산지인 개념어들 이 한자를 매개로 번역되고 수용되는 과정에서 빚어낸 근대 개념사 내지 어휘사의 풍경에 대한 한 소묘가 될 것이다.

II. 중(中)과 서(西)의 언어접촉과 ‘번역된 근대’

왕국유(王國維 1877~1927)는 1905년에 발표한 『‘신학어’(新學語)의 유입을 논함』에서 “근년에 문학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있으니, 그것은

3) 『진화와 윤리』는 다윈을 끝까지 옹호하여 ‘다윈의 불독’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헉슬리가 죽음을 두 해 앞두고 옥스퍼드대학교의 로마니즈(Romanes) 강연에서 언설한 원고의 내용이다. 엄복의 『천연론』은 『진화와 윤리』를 상당한 정도로 자의적으로 번역하고 거기에 해설을 붙인 책으로, 중국 지식인의 전통적인 술이부작(述而不作)이라는 전통을 계승한 일종의 평역서(評譯書)라고 할 수 있다.

‘신어(新語)’의 유입이다. 언어는 사상의 표현이다. 새로운 사상의 유입은 새로운 언어의 유입을 의미한다.”⁴⁾고 적고 있다. 이 글에서 ‘신학어’ 또는 ‘신어’가 가리키는 것은 번역을 통해 소개된 근대 번역어이다. 전통사회가 붕괴하고 새로운 사회가 태동하는 전환기의 중심을 살았던 지식인 왕국유는 혼란스러운 시대상을 전통시대의 어휘에서 근대의 어휘로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⁵⁾

모든 언어는 언어접촉을 통하여 끊임없이 교류한다. 중국어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어는 고립어(isolating language)일지는 몰라도 고립된 언어(isolated language)는 아니다.”(Harbsmeier 1998: 30) 중국어가 주변 언어에 미친 영향에 비해 주변 언어가 중국어에 미친 영향은 늘 간과되거나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지만, 중국어도 끊임없이 주변 언어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마요어·야오어·몬어·크메르어·타이어 등 오스트로-아시아어족, 서역의 언어인 인도-이란어족과 인도-유럽어족, 흉노·선비·몽고·만주어 등 알타이어족에서 받아들인 많은 차용어들이 그 증거이다. 특히 불교의 동전(東傳)과 함께 대규모로 유입된 산스크리트어 차용어의 영향력은 컸다.⁶⁾

명나라 말기부터 중국어로 유입되는 차용어의 양상이 급변하기 시작한다. 서양에서 건너온 새로운 개념을 담은 어휘들이 한자로 번역되어 중국어에 유입되었다. 또 에도시대 이후 일본의 난학자들이 만들어낸 번역어들과 메이지시대 이후 일본어로 번역된 유럽어 어휘들은 상당수가 한자를 매개로 중국어로 유입되었다. 중국어와 유럽 언어들의 본격적인 언어접촉은 명말(明末)에 시작되었다. 중국어가 유럽의 언어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탄생된

4) “近年，文學上有一最著之現想，則新語之輸入是已。言語者，思想之代表也。故新思想之輸入，即新言語輸入之意味。”

5) 이하 II장의 일부 내용은 양세욱(2009)을 요약하고, 이 글의 취지에 맞게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였음을 밝혀둔다.

6) 중국어가 계통이 전혀 다른 산스크리트어와 팔리어를 만나 한역불경(漢譯佛經)이라는 방대한 체계를 이루어 낸 경험이 근대 동아시아의 번역 작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근대 번역어는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1단계는 예수회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 입국한 1582년부터 예수회가 해산된 1773년까지로, 이 시기에는 예수회 선교사들이 번역을 주도하였다. 제2단계는 백년금교(百年禁教)가 해제되어 개신교 선교사들이 번역과 사전편찬에 종사했던 19세기 초반이다. 제3단계는 임칙서(林則徐)·위원(魏源)·서계여(徐繼畬) 등 이른바 경세파(經世派) 학자들이 서양의 사정에 대한 활발한 저술 활동을 펼쳤던 19세기 중반이다. 마지막 제4단계는 엄복(嚴復)·마건충(馬建忠) 등 서양의 언어와 학문에 정통한 일군의 학자들이 서양의 책들을 직접 중국어로 번역한 시기로, 대략 청일전쟁 이후부터 1919년 5·4운동 때까지이다.

유럽에서 건너온 새로운 개념을 담은 어휘들을 한자어로 번역하는 일은 명말에 처음 시작되었다. 중국어와 유럽어 사이의 최초의 언어접촉으로 기록될 이 일을 주도한 인물은 이탈리아 출신의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중국 이름은 리마두 利瑪竇 1552~1610)를 비롯한 예수회 선교사들(Jesuits)이었다. 16세기 유럽에서 발생한 종교혁명으로 위기에 처한 가톨릭의 혁신을 위해 탄생된 예수회(Society of Jesus)는 1540년 로올라(Ignatius de Loyola 1491~1556) 등의 주도로 프랑스 파리에서 창설된 가톨릭의 남자 수도회이다. 야소회(耶穌會)나 제수이트 교단으로 불리기도 한다. 1552년 이탈리아 마체라타에서 태어나 1571년 예수회 수사가 된 마테오 리치는 1582년 선교를 위해 마카오에 도착하여 1610년 베이징에서 사망할 때까지 28년 동안 중국에 체류하였다. 리치는 선교사였을 뿐 아니라 수학·천문학·지리학·기역술 등 여러 학문에 밝았던 박람강기(博覽強記)의 대학자였다. 리치가 선교사로서, 학자로서 중국에서 거두었던 성공의 배경에는 중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유창한 중국어 구사 능력이 자리하고 있다.7) 리치는 『사서(四書)』를 라틴어로 번역하고, 『천주실의(天主實義)』·『교우론(交友論)』·『이십오언(二十五言)』·『기인십편

7) 1595년에 쓴 편지에서 리치는 중국어와 한문의 구사 능력이 이미 모국어인 이탈리아어를 초월했다면서 “이탈리아 글은 너무 오랜 동안 사용하지 않아 더 이상 쓸 용기가 없다”고 고백한 바도 있다.(Spence 1984/1999)

『畸人十篇』 등을 한문으로 저술하였다.

리치는 깊은 우정을 나누었던 벗 서광계(徐光啓 1562~1633)와 함께 유클리드의 『기하학원론(Elements of Geometry)』의 일부를 『기하원본(幾何原本)』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하였다.⁸⁾ 또 이지조(李之藻 1565~1630)와 함께 『동문산지(同文算指)』를 번역하기도 하였다. “서양학자가 입으로 구술하면, 중국학자가 붓으로 받아 적는(西士口授, 中士筆受)” 협업을 통해 유럽에서 건너온 생소한 개념들이 중국어로 번역되기 시작한 것이다. ‘geometry’의 ‘geo’를 음역한 ‘기하(幾何)’를 비롯하여 ‘직선(直線)·곡선(曲線)·대각(對角)·직각(直角)·둔각(鈍角)·삼각(三角)·면적(面積)·체적(體積)·평방(平方)·입방(立方)·약분(約分)·통분(通分)’ 등의 수학 분야의 어휘들, ‘지구(地球)·경선(經線)·위선(緯線)·열대(熱帶)·냉대(冷帶)·온대(溫帶)’ 등의 지리 분야의 어휘들이 이 책들을 통해 선보였다. 또 한 명의 이탈리아 예수회 수사인 줄리오 알레니(Giulio Aleni 1582~1649)는 『서학범(西學凡)』과 『직방외기(職方外紀)』를 지어 서양의 종교와 철학, 자연과학을 소개하면서 ‘원죄(原罪)·구세주(救世主)·조물주(造物主)·공법(公法)·문과(文科)·이과(理科)·지구(地球)·대서양(大西洋)·열대(熱帶)’ 등의 어휘를 중국에 소개하였다. 리치와 알레니를 비롯한 예수회 선교사들이 중국인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 번역과 저술을 통해 당시 중국인들에게 생소한 개념을 담은 많은 번역어들이 만들어졌다. ‘북극(北極)’, ‘남극(南極)’, ‘적도(赤道)’, ‘대학(大學)’ 등 중국에서 이미 사용되던 어휘들은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았으며, ‘중학(中學)’, ‘문과(文科)’, ‘이과(理科)’, ‘의과(醫科)’, ‘의학(醫學)’ 등의 어휘들은 중국에 처음으로 소개되었다.(Masini 1994/2005: 28)

1757년雍正제가 전례(典禮) 문제 등에서 비롯된 마찰을 계기로 기독교

8) 마테오 리치와 서광계(徐光啓)가 공역한 『기하원본(幾何原本)』은 『기하학원론』의 1권에서 6권까지이다. 나머지 7권부터 15권까지는 중국인 수학자 이선란(李善蘭 1810~1882)과 개신교 선교사 알렉산더 와일리(Alexander Wylie, 1815~1887)의 번역으로 1857년에 『속기하원본(續幾何原本)』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기하학원론』의 최초 완역본은 1865년 남경(南京)에 『기하원본십오권(幾何原本十五卷)』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선교활동을 금지시키고 모든 외국인들의 활동 범위를 광저우로 제한하였으며, 뒤이어 1773년 교황 클레망 14세가 예수회의 해산을 선포함으로써 중단되었던 중서 언어접촉은道光 44년(1844년) 금교령의 해제를 전후로 재개되었다. 이 ‘백년금교’ 이후 중국에 입국하여 선교 활동을 펼친 사람들은 영국과 미국의 선교사들이었다. 이들의 학문적 수준은 이전의 예수회 선교사들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지만, 이들의 번역과 저술 작업을 통해 새로운 번역어들이 중국에 소개될 수 있었다.

1807년에 입국한 영국 런던선교회(London Missionary Society) 소속의 선교사 모리슨(Robert Morrison 1782~1834)은 1808년부터 『성경』의 번역을 시작하여 1813년에는 신약을, 1819년에는 구약을 번역하였고, 1823년에는 ‘신천성서(神天聖書)’라는 제목으로 최초의 중국어 『성경』을 완역, 출간하였다. 모리슨이 『신천성서』에서 확정한 ‘상제(上帝)·전지(全知)·전능(全能)·삼위일체(三位一體)·원죄(原罪)·창세(創世)·말세(末世)·천국(天國)·교회(教會)·은총(恩寵)·사면(赦免)·성찬(聖餐)·예정(豫定)’ 등의 기독교 용어들은 중국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기독교 용어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모리슨은 또 『화영자전』(華英字典 1815~1823)을 편찬하여 근대 번역어를 수집, 정리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한편 브릿만(Elijah Bridgman 1801~1861) 등이 편역한 『오문월보(澳門月報)』와 『동서양고매월총기전(東西洋考每月統記傳)』은 중국인들이 서양의 소식을 접하는 중요한 창구였을 뿐 아니라 ‘국회(國會)·출구(出口)·입구(入口)·유태인(猶太人)·현미경(顯微鏡)·신문지(新聞紙)·문예부흥(文藝復興)’ 등의 근대 번역어를 소개하는 통로 역할도 담당하였다.

19세기 중반부터는 경세파로 불리는 중국학자들이 직접 서양의 지리와 정치, 사회를 소개한 책들을 다투어 출간하기 시작한다. 임칙서(林則徐 1785~1850)의 『사주지』(四洲志 ?1841), 위원(魏源 1794~1857)의 『해국도지』(海國圖志 1844), 서계여(徐繼畬 1795~1873)의 『영환지략』(瀛環志略 1848~1849) 등이 대표적이다. 당시 수집 가능한 서양과 관련된 자료들의 모음집이랄 수 있는 『해국도지』는 중국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역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학교(學

校)·신문(新聞)·무역(貿易)·교역(交易)·문학(文學)·법률(法律)·화차(火車)·공사(公司)·국회(國會) 등의 근대 어휘들이 이 저서를 통해 중국에 널리 소개되었다. 또 이 무렵에는 베이징에 세워진 경사동문관번역처(京師同文館翻譯處)와 경사대학당편역국(京師大學堂編譯局), 상하이에 세워진 강남기기제조국번역관(江南機器製造局翻譯館) 등 정부에서 주도한 번역 기관, 묵해서관(墨海書館)·광학회(廣學會) 등 서양 선교사들이 주관한 번역 출판 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서양의 책들을 출간하였다. ‘수학(數學)·방정(方程)·식물학(植物學)·의원(醫院)·공기(空氣)·대수(代數)·미분(微分)·적분(積分)·상수(常數)·화학(化學)’ 등의 번역어들이 이 책들을 통해 소개되었다.

청일전쟁(1894)을 전후로 근대 번역어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엄복(嚴復 1853~1921)·마건충(馬建忠 1845~1900)·마군무(馬君武 1881~1940) 등 서양의 언어와 학문에 정통한 일군의 학자들이 서양서들을 직접 중국어로 번역하기 시작하였다. 헉슬리의 『진화와 윤리(天演論)』,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法意)』, 스미스의 『국부론(原富)』, 밀의 『자유론(自由論)』 등 많은 고전을 중국어로 번역한 엄복의 공은 특히 컸다. ‘우생열패(優生劣敗)·적자생존(適者生存)’ 등 아직까지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번역어도 있지만, 엄복이 창안한 많은 번역어들은 일본에서 수입된 번역어들로 대체되었다. 예를 들어 ‘천연(天演)’은 ‘진화(進化)’로, ‘모재(母財)’는 ‘자본(資本)’으로, ‘군학(群學)’은 ‘사회학(社會學)’으로, ‘격치학(格致學)’은 ‘자연과학(自然科學)’으로, ‘이학(理學)’은 ‘철학(哲學)’으로 대체되었다.

근대 번역어의 생산 과정에서 중국과 일본은 서로를 참조하고 영향을 주고받았다. 에도시대 이후 일본어로 번역된 유럽의 근대 어휘들은 상당수가 중국어로 유입되었고, 일본 역시 번역의 과정에서 중국의 번역어들을 지속적으로 참고하였다.

일본과 서양의 접촉은 포르투갈인이 우연히 큐슈 남단의 섬에 표착한 1543년부터 시작되었다. 에도시대를 지배했던 도쿠가와 막부는 초기에 서양에 대해 개방정책을 펼치다가, 기독교가 점점 확산되자 1630년대에 기독교

금지령의 시행과 함께 포르투갈인들을 추방하고 엄격한 쇄국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유일하게 선교활동을 하지 않았던 네덜란드인과 중국인에게만 나가사키(長崎) 항구 안에 있는 데지마(出島)라는 부채꼴 모양의 작은 인공 섬에서 제한적인 교역을 허용하였다. 데지마에는 교역품과 함께 서양의 과학기술 서적들이 수입되었다. 에도시대 중기 이후 일본에서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한 상인층을 중심으로 네덜란드와의 교역을 통해 보급된 서양의 과학기술 관련 서적을 연구하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서양의 의학과 과학지식이 빠른 속도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학문 분과로까지 확대되게 된다.

1774년 일본인 의사 스키타 겐파쿠(杉田玄白) 등이 네덜란드어 해부학 책을 『해체신서(解體新書)』라는 제목으로 번역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시작된 네덜란드 문헌들을 통한 서양 학술 연구를 ‘난학(蘭學)’이라고 부른다.⁹⁾ 막부가 있던 에도의 난학자들이 나가사키 통역사들의 도움을 받아 개화시킨 난학의 요체는 번역이었다. 난학자들은 네덜란드어로 소개된 유럽의 개념들을 일본어로 옮기기 위해 노력했고, 이 일은 메이지유신 뒤 유럽 문화의 수입이 본격화되면서 훨씬 더 커다란 규모의 번역 사업으로 확장됐다. 이들은 네덜란드어의 한 단어를 일본어로 번역하기 위해, 그 단어의 어원과 변천과정, 당시의 쓰임새 등 전 역사를 조사한 뒤, 그에 상응한다고 판단된 한자어를 골라내기 위해 고대 중국문헌을 뒤적이거나 한자를 조립하여 새로운 어휘를 만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탈아입구(脫亞入歐)의 기치 아래 막부 말기 양학의 중심은 난학에서 영학으로 바뀌었지만, 메이지 유신 이래로 양학은 최전성기를 맞아 무수한 번역어들이 생겨났다. 막부 막기에 이미 한 달이면 수천 권씩의 서양서가 나가사키 항에 도착했다고 한다. 우리말에서 한자어가 대체로 고급스러운 개념어들이고 고유어가 기초어휘이듯이, 일본어의 경우에도 칸고(漢語)가 대체로 개념어들이라면 와고(和語)는 대체로 기초어휘를 이루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서양

9) ‘난학’은 ‘네덜란드학’이라는 의미로, 당시 일본은 네덜란드(홀란드)를 오란다(阿蘭陀)라고 불렀다.

의 새로운 개념을 번역하기 위해 난학자들이 와고가 아니라 칸고를 택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메이지 시대의 번역 열풍은 초기의 의학에서 화학·물리학·천문학·군사학 등을 거쳐 철학의 영역에 까지 확장되었다. 일본 최초의 네덜란드 유학생이자 ‘근대 일본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니시 아마네(西周 1827~1897)가 만든 번역어 ‘철학(哲學, philosophy)’의 예를 통해 근대어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 보기로 하자.

니시 아마네는 그 당시 많은 지식인들과 마찬가지로 난학에 참여하여 츠다 마미치(津田眞道)와 함께 1862년부터 1865년까지 네덜란드 레이든대학교에서 유학하였다. 그는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츠다 마미치(津田眞道)·모리 아리노리(森有禮) 등과 함께 ‘문명개화(文明開化)’를 기치로 내건 메이료쿠샤(明六社)의 일원으로 철학·심리학·논리학 등과 관련된 새로운 용어를 처음 만들었다. 니시 아마네는 네덜란드로 유학하기 직전 도쿄 대학교의 전신인 가이세이소(開成所)에서 철학 강의를 하였는데, 이때 가르친 과목을 ‘希哲學(기데츠가쿠)’라고 불렀다. ‘希哲學’은 송(宋) 주돈이(周敦頤 1017~1073)의 『통서(通書)』에 나오는 ‘聖希天, 賢希聖, 士希賢(성인은 하늘을 바라고, 현인은 성인을 바라며, 사인은 현인을 바란다)’에서 암시를 얻은 말이다. ‘Philosophia’가 ‘希賢’의 정신과 통한다고 여겨 처음에는 이를 ‘希賢學’으로 옮겼다가, ‘賢’이 지나치게 유가의 색채가 짙다고 하여 결국 ‘賢’을 ‘哲’로 바꾼 ‘希哲學’이 된 것이다. 니시 아마네는 이때의 강의를 토대로 1874년에 출판한 『백일신론(百一新論)』에서 ‘希哲學’ 대신에 ‘希’를 생략한 ‘哲學(테츠가쿠)’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이 ‘哲學’이란 번역어는 이후에 중국어로 수입되었다.¹⁰⁾

10) 이 번역어가 사용된 최초의 중국 문헌은 1894년에 출간된 황경징(黃慶澄)의 『동유일기(東遊日記)』이다. 이전에 출간된 위원(魏源)의 『해국도지(海國圖志)』나 서계여(徐繼畬 1795~1873)의 『영환지략(瀛環志略)』에는 ‘philosophy’를 음역(音譯)한 ‘斐祿所費亞’가 사용되었다. 모리오카 겐지(森岡健二, 1969: 126~138)에 따르면, ‘철학’ 이외에 니시 아마네를 통해 독자적으로 번역된 말 가운데 지금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어휘들로 ‘개념(概念, notion), 공간(空間, space), 시간(時間,

‘哲學’의 예가 보여주듯이, 에도 시대 이후 난학자들이 만들어낸 번역어들과 메이지시대 이후 일본어로 번역된 유럽어 어휘들은 상당수가 한자를 매개로 중국으로 유입되었다. 아편전쟁의 패배(1840~1842) 이후 중국 지식인들 사이에서 점증하던 위기의식은 청일전쟁의 패배와 무술변법(1898)의 실패로 극에 달하였다. 이를 계기로 많은 중국 유학생들이 일본에 유학하여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배웠고, 일본어 서적에 대한 대규모의 중역(中譯)이 이루어졌다. 1896년부터 1911년 사이에 958권의 일본어 서적이 중국어로 번역되었고, 1905년과 1906년에 일본에 유학한 중국인 학생은 이미 8천 명을 넘어섰다.(Masini 1994/2005: 174) 이들 중국인 유학생 가운데는 훗날 중국 사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손문(孫文)·노신(魯迅)·주작인(周作人)·곽말약(郭沫若)·왕국유(王國維)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중국 유학생들의 일본 유학과 일본어 서적의 중역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근대 번역어들이 중국어로 유입되는 전기가 되었다. 청일전쟁 이전부터 이미 일부 일본산 번역어들이 중국어에 영향을 미쳤지만, 그 본격적인 유입은 이 무렵부터 시작되었다. 한자를 매개로 하는 공동문어를 사용했던 동아시아에서 메이지시대를 전후로 어휘 생산의 주체가 중국에서 일본으로 이동한 것이다. 고대중국어의 어휘를 그대로 채용하였거나 한자 형태소를 활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이 어휘들은 큰 마찰이나 거부감이 없이 중국어로 쉽게 유입될 수 있었다.¹¹⁾

time), 관념(觀念, idea), 귀납(歸納, induction), 연역(演繹, deduction), 긍정(肯定, affirmative), 부정(否定, negative), 능력(能力, faculty), 도덕(道德, moral), 명제(命題, proposition), 본능(本能, instinct), 외연(外延, extension), 원리(原理, principle), 의무(義務, obligation), 의식(意識, consciousness), 이상(理想, ideal), 이성(理性, reason), 정서(情緒, emotion), 정의(定義, definition), 주관(主觀, subjective), 직관(直觀, intuition), 추상(抽象, abstract), 구체(具體, concrete), 현상(現象, phenomenon)’ 등이 있다.

11) 일본 한자어의 차용에 거부감을 표시하는 이들도 물론 있었다. 엄복은 중국어 어휘를 일본어 차용어의 유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미 당시의 서적에 있던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새 용어를 합성해내기를 선호하였다.(Masini 1994/2005: 184-185)

일본이 근대 번역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미 중국에서 이루어진 번역어들을 참고하였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 그 전통은 명말 예수회 선교사들이 번역한 번역서들로 거슬러 올라간다. 가령, 마테오 리치와 서광계가 번역한 『기하원본』은 출간 직후 일본에 전해져 1630년에 이미 금서로 지정되고, 1720년에 이르러 공식 해금되었다. 19세기 이후 중국에서 출간된 주요 번역서들도 곧바로 일본에 소개되었다. 위원의 『해국도지』(1844)는 1850년과 1854년에 일본에서 출간되었고, 서계여의 『영환지략』(1848~49)은 1859년과 1861년에 일본에서 출간되었을 뿐 아니라 1874년에 일본어로 재번역되기도 하였다. 1836년에 출간된 헨리 휘턴(Henry Wheaton)의 『국제법원리(Elements of International Law)』를 윌리엄 마틴(William Martin 1827~1916)이 1864년 번역한 『만국공법(萬國公法)』은 메이지유신 직전에 일본에 전해져 일본의 근대적 법률 어휘 및 정치 어휘의 형성에 기여했다. 모리슨이 근대 번역어를 수집, 정리하여 편찬한 『화영자전』(1815~1823) 역시 곧 바로 일본에 전해졌다. 이와 같이 번역어의 생산 과정에서 중국과 일본은 지속적으로 서로를 참조하고 영향을 주고받았던 것이다.

차용어를 수용할 때 음역과 의역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은 모든 언어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며, 중국어 차용어에서도 후한과 위진남북조 시기에 산스크리트어를 대량으로 차용할 때 유사한 양상이 발견된다. 일반적으로 중국어는 차용어를 받아들일 때 음역보다는 의역을 선호한다.

16세기부터 사용되었던 ‘opium’의 음역 ‘아편(鴉片)’, 1815년 Morrison의 Dictionary에 등장하는 ‘coffee’의 음역 ‘가비(咖啡)’ 등이 지금까지 널리 쓰이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역한 번역어가 살아남았다. ‘沙發(sofa)·的士(taxi)·黑客(hacker)·雪茄(cigar)·咖喱(curry)·卡通(cartoon)·卡(card)·泵(pump)’ 등도 음역을 통해 중국어에 유입된 예외적인 차용어들이다. ‘democracy’가 ‘덕모극납서(德謨克拉西)’에서 ‘민주(民主)’로, ‘science’가 ‘새인사(賽因斯)’에서 ‘과학(科學)’으로 각각 어휘 대체의 과정을 겪은 것도 의역에 대한 선호

때문이다.¹²⁾ 음역보다 의역을 선호하는 차용어 수용 양상은 과도한 형태소의 증가에 수반되는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어처럼 오랜 문헌 전통을 유지하고 있어서 고대어의 영향을 크게 받는 언어의 경우에는 음역을 통해 새로 도입되는 형태소들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¹³⁾

근대 번역어들이 생산되고 수용되는 과정에서도 의역에 대한 선호는 절대적이다. 근대 번역어에서 두 한자를 전통적인 중국어 조어법에 따라 결합한 합성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직선·곡선·미분·적분·원·죄·문과·이과·지구·열대·신문·무역·교역·진구·출구·법률·화차·공사·국회·개념·공간·시간·관념·귀납·연역·명제·이성·추상·구체·현상’ 등 많은 번역어들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이 번역어들을 구성하는 두 형태소는 병렬 관계, 수식 관계, 동목 관계 등을 이룬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중국어 조어법과 일치한다. ‘조물주·구세주·대서양·현미경·천리경·신문지’ 등 일부 삼음절어, ‘적자생존·문예부흥’ 등 일부 사음절어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이음절어인 점도 전통적인

12) 한편 음역 어휘를 의역 어휘로 교체하는 것이 중국어 차용어의 큰 추세이지만 그 역의 과정도 존재한다. ‘logic’은 처음 엄복에 의해 ‘명학(名學)’으로 번역되었으나 뒤에 ‘논리학(論理學) → 이칙학(理則學) → 라집(邏輯)’ 등의 변화 과정을 거쳐 결국 음역인 ‘라집(邏輯)’이 살아남았다. ‘opium’(아편)의 경우에도 16세기부터 존재했던 음역 ‘아편(雅片)’은 19세기에 만들어진 ‘양연(洋烟)’으로 대체되지 않았다.

13) 일반적으로 한 언어에서 사용되는 형태소의 총수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으며, 고도로 발달된 문헌 전통을 유지하고 있고 수십만 개에 달하는 어휘를 보유하고 있는 언어라고 할지라도 고유한 형태소의 수는 수 천 개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어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현대의 『설문해자』 이래로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전에 수록된 한자의 총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실제 언어생활에서 사용되는 한자의 수는 5,000자를 훨씬 밑도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주에서 한나라 초엽까지 거의 천년에 걸쳐 이루어진 문헌들을 모아 놓은 『십삼경(十三經)』에 사용된 한자의 총수가 6,500자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1,000자를 알면 『십삼경』에 사용된 한자의 88.53%를, 2,000자를 알면 95.59%를, 3,000자를 알면 98.24%를 각각 이해할 수 있다. 현대 중국어의 경우에도 주요 한자의 사용 빈도 추세에는 큰 변화가 없어, 1,000자를 알면 현대의 각종 문헌에 사용된 한자의 91.37%를, 2,000자를 알면 98.07%를, 3,000자를 알면 99.63%를 각각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허성도 1998) 이렇듯 중국에서 수천 년 동안 상용되는 한자와 형태소의 총수는 큰 변동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중국어 어휘와 같다.¹⁴⁾

근대 번역어의 생산자들은 대체로 창신(創新)보다는 법고(法古)의 전통을 따랐다. 고전 문헌들에서 이미 사용되었던 어휘들을 되살려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부득이하게 새로운 번역어를 만들어야 할 경우에도 고대중국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조어 원칙을 지켰다. 이런 노력은 근대 번역어가 빠르게 확산되는 원동력의 하나였음이 분명하다.

Ⅲ. ‘개인’과 ‘사회’의 번역과 수용

동아시아에서 근대는 풍문으로 먼저 왔으므로, 서양 언어의 번역은 이중의 고통을 수반하였다. 일차적인 어려움은 믿고 의지할 사전이 없었다는 사실에서 초래되었다. 물론 각종 사전이 잘 갖추어진 지금도 사전에만 의지하여 번역 작업을 수행하기란 불가능하다. 대역(對譯) 사전들에서 표제어에 대한 의미항은 도착어(target language)와 출발어(source language) 사이의 가지런한 대응관계를 가장하지만, 실제 번역에서 고유의 어감을 지닌 대상 어휘의 의미가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는 빈번하다. 그러나 아예 사전이 없는 번역 작업의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는 지금의 우리가 실감하기 어렵다.

보다 근본적인 어려움은 번역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현상 자체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는 데에 있었다. 즉 있는 현실이 아니라 있어야하는 현실의 개념들을 대상으로 번역 작업을 진행해야 했다는 것이었다. 현재 우리가

14) 중국어는 대부분의 형태소가 단음절인 단음절어(monosyllabic language)의 전형적 특징을 보여준다. ‘도(道)·덕(德)·인(仁)·의(義)·예(禮)·지(智)·신(信)·충(忠)·효(孝)’ 등은 단음절 형태소가 그대로 단어가 되는 예이다. 중국어에서 단음절 형태소가 결합하여 합성어를 만들 때 이음절에 대한 선호는 절대적이다. ‘군자(君子)·소인(小人)·붕우(朋友)·제자(弟子)·부모(父母)·형제(兄弟)·귀신(鬼神)·부자(父子)·천자(天子)·이적(夷狄)·문헌(文獻)’ 등이 그 예이다.

사용하고 있는 근대 번역어들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 번역자들이 고군분투하며 만들어 낸 것이며, 치열한 경쟁을 거쳐 살아남은 것들이다. 현재 우리의 관점에서 당시에 이루어진 번역어를 보면 낯설기도 하고 때로 오역이라고 할 만한 사례들도 적지 않다. 이러한 오역은 단순한 무지나 지적 게으름이기 이전에 있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진행된 번역 과정에서 빚어진 불가피한 산물이다.

번역어가 원어의 의미를 고스란히 담기란 매우 어렵다. 번역 과정에서 서양의 개념들이 ‘중국적’으로 변질되거나 가공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불가피하다. 번역에서 출발어와 도착어 사이에 의미의 등가성(equivalence)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를 둘러싼 논쟁은 늘 있어왔다. 번역이라는 작업은 원칙적으로 두 언어 사이의 등가성을 전제로 하지만, 상이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지닌 두 단어가 내용 의미와 색채 의미까지 동일하기란 어렵다. 따라서 번역은 의미의 번역이면서 맥락의 번역이기도 하고 나아가 문화의 번역이기도 하다. 번역은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 속에서 두 언어가 역동적으로 만나고 교감하면서 서로의 언어를 둘러싼 사회와 문화 사이에서 의미를 교환하는 과정이다.

의미의 등가성은 가변적이기도 하다. 번역되는 말이 단일하고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번역된 말 또한 번역되는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출발어의 경계를 넘어 확장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획득해간다. 말의 짝 짓기 이후 때로는 두 언어의 의미 수렴을 통해 등가성이 확립되기도 하고, 때로는 두 언어의 의미 확산을 통해 등가성이 무너지기도 한다.

야나부 아키라(柳父章)는 일본의 번역사를 살피면서 번역이 사람들을 조종하는 미술의 힘을 ‘카세트 효과’라고 이름 붙였다.(柳父章 1982/2011: 49)

일본어에서 한자어가 갖는 이런 효과를 나는 ‘카세트 효과’라고 부른다. 카세트(cassette)란 작은 보석상자를 의미하며, 내용물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매혹하고 끌어당기는 물건이다. ‘사회’도, 그리고 ‘개인’도 일찍이 이런 ‘카세트 효과’를 발휘한 단어였으며, 그 효과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오늘날의 일본인들에게도 여전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카세트(cassette)는 보석상자를 의미하는 프랑스어로, 예쁘고 매력적인 카세트는 그 안에 대단치 않은 물건이 들어있거나 심지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도 보석이 들어 있을 것 같은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일종의 ‘신비주의’ 효과이다. 번역을 통해 탄생한 신어(新語)는 카세트처럼 매력적이었고, 의미가 빈약한 경우에도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였다. 이런 효과를 통해 출발어와는 다른, 때로는 출발어보다 풍부한 의미를 획득해갔다. ‘음식문화·기업문화·대중문화·밤문화·여행문화·대학문화·청소년문화·교통문화·길거리문화·사이버문화’ 등으로 확장되는 ‘문화’가 그 한 사례이다. 이러한 의미의 확장 덕분에 문화는 체계적인 정의가 불가능한 개념이 되고 만 듯하다. 다른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번역어들은 이런 카세트 효과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지, 가장 뛰어난 번역어였기 때문에 생존한 것은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장 뛰어난 번역어’라는 말 자체가 의심스러울 수도 있다.

‘개인(個人)’과 ‘사회(社會)’는 오래전 중국에서 사용되었던 단어들이지만, 이들을 individual과 society의 번역어로 다듬어 낸 사람들은 메이지 초기의 일본인들이다.¹⁵⁾ ‘개인’과 ‘사회’를 통해 있는 현실이 아니라 있어야 하는 현실의 개념들을 대상으로 다듬어진 번역어들이 만들어내는 의미의 파문을 살펴보기로 하자.

‘개인(個人)’과 ‘사회(社會)’는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혼란스러운 말인 듯하다. ‘개인’의 경우 ‘한 사람’이라는 의미의 일상적인 용례와 사회를 구성하

15) ‘개인(個人)’은 전통시기 중국에서 ‘그 사람’ 또는 ‘(일개인)一個人’에서 ‘一’이 생략된 것과 같은 의미인 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漢語大詞典』 7: 833) ‘사회(社會)’는 ‘봄·가을에 신령을 맞이하기 위해 벌이는 모임’으로 사용되다가 명(明) 이후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모여 조직한 조직이나 단체’라는 의미로도 쓰였다.

는 단위로서의 사회학적 용례가 혼용되는 예가 흔하다. ‘사회’ 역시 소규모 집단으로부터 가족과 친족 등으로 형성된 자연적 공동체, 다수 언어와 인종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 집단에 이르기까지 그 용례가 다양하다. 심지어 ‘사회 진출’ 등과 같이 학교와 사회가 대립하기도 하고, 주로 군대 안에서 군대를 사회와 대립시키는 이분법이 통용되기도 한다. ‘개인’의 경우 두 용례가 사용되는 영역(register)이 달라 의미 구분에 도움이 되고, 사회의 경우 신분제도와 같은 경제 외적 강제로 유지되어온 전근대 시대의 집단이나 공동체와 사회가 혼동되는 일이 드물기는 하다. 그러나 이들이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개인(個人)’과 ‘사회(社會)’가 individual과 society의 번역어로 확정되기까지의 우여곡절을 살펴보면 메이지 초기의 일본인들에게 이 말들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이었음이 분명하다. 야나부 아키라(柳父章 1982/2011: 19)는 ‘사회’라는 번역어의 성립 과정을 검토하면서, “본래 society는 번역하기가 매우 어려운 말이었다. 무엇보다도 society에 해당하는 말이 일본어에 없었기 때문이다. 해당하는 말이 없었다는 것은 곧 society에 대응할 만한 현실이 일본에 없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 ‘개인’이라는 번역어에 대해서도, “당시의 일본인들은 individual이라는 단어의 뜻을 이해하기가 매우 힘들었다. 그것은 society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과 본질적으로 유사하다.”(柳父章 1982/2011: 40)라고 말했다.

먼저 ‘개인’이 individual의 번역어로 확정되는 과정을 살펴보자. 중국에서 활동하던 서양 선교사들은 선교 과정에서 대역사전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여러 종류의 사전이 편찬되었다. 로버트 모리슨(Robert Morrison 1782~1834)의 『영화자전(英華字典)』(1815~1822)은 당시 널리 퍼진 대역사전의 하나이다. 『영화자전』에서 individual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Individual : 單, 獨, 單一個 (例) “There is but a single individual there.”(獨有一個人在那處. 단독으로 일개인이 거기에 있다.)

모리슨의 『영화사전』보다 약 20년 늦게 출간된 메드허스트(W. H. Medhurst)의 『영한자전(英漢字典)』(1847~1848)에서는 individual이 ‘單身獨形, 獨一個人, 人家’ 등으로, 다시 『영한자전』보다 약 20년 후에 출간되어 중국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널리 읽혔던 최고의 대역사전인 로브샤이드(W. Lobschied)의 『영화사전(英華字典)』(1866~1869)에서는 ‘독일개인(獨一個人), 독일자(獨一者)’ 등으로 번역되어 있다.

메이지 시기 일본의 번역은 이러한 중국의 대역사전의 영향 아래서 진행되었다. 1860년대까지는 individual을 메이지 이전부터 일본어에서 사용되고 있던 ‘하나의 몸, 한 사람, 혼자’ 등으로 번역되었으나, 1870년대 이후 individual이라는 단어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차츰 깨닫고 새로운 번역어를 모색하였다. 나카무루 마사나오(中村正直 1832~1891)가 밀(J. S. Mill)의 On Liberty(1859)를 번역한 『자유지리(自由之理)』(1872)에 등장하는 ‘인민각개(人民各箇)’,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4~1901)이 웨일랜드(Francis Wayland)의 “The Elements of Moral Science”(1863)를 인용하여 쓴 「一身의 자유를論하다」라는 논설문에 등장하는 고유어 ‘人各々’ 등이 그 예이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문명론의 개략(文明論之概略)』(1875)에서 고유어를 포기하고 중국의 대역사전들에서 등장했던 ‘독일개인(獨一個人)’을 individual의 번역어로 다시 사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본의 인간교제는 상고시대부터 치자와 피치자의 두 원소로 나뉘어 권력의 편중을 이뤄왔으며, 오늘날까지도 그런 경향이 바뀐 적이 없다. 인민들 사이에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주장하는 자가 없었음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 … 난세의 무인(武人)에게 의로운 용기가 있는 것과 비슷하지만, 역시 독일개인(獨一個人)의 제대로 된 의미를 모른다.”(柳父章 1982/2011: 51)

후쿠자와 유키치는 이 글에서 그가 평소에 기피해오던 한자어로 되돌아간 것은 individual에 대한 그의 이해가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임을 암시한다.¹⁶⁾ 양학자(洋學者)로 영어에 조예가 깊었던 마쓰시마 고(松島剛)가 스펜서

(Herbert Spencer)의 “Social Statics”(1851)을 번역한 『사회평등론(社會平等論)』(1884)에서는 ‘독일개인(獨一個人)’에서 ‘독(獨)’을 생략한 ‘일개인(一個人)’이, 그리고 마침내 나카에 조민(中江兆民)이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인 불학숙(佛學塾)에서 펴낸 『불화사림(佛和辭林)』 개정판(1891)에서 individualisme에 대해 ‘개인주의’라는 풀이가 처음으로 등장한다.¹⁷⁾

다음으로 ‘사회’가 society의 번역어로 확정되는 과정을 살펴보자.

중국의 고전에서 ‘사회’는 ‘봄·가을에 신령을 맞이하기 위해 벌이는 모임’으로 사용되다가 명(明) 이후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모여 조직한 조직이나 단체’라는 의미로도 쓰였다.¹⁸⁾ 메이지 초기 일본에서 두 번째 의미가 확장되어 society의 번역어로 선택되었다.

19세기 초반 society에 대한 번역은 혼란스러웠다. 1814년에 나가사키의 통역관 모토키 마사히데(本木正營)가 만든 일본 최초의 영어-일본어 사전인 『안게리아어림대성(安ゲリア語林大成)』에는 반려라는 의미의 ‘여반(侶伴)’으로, 1855년에서 1858년 사이 일본 최초의 네덜란드어-일본어 대역사전인 『하루마화해』(1796)를 토대로 완성도를 높인 사전인 『화란자휘(和蘭字彙)』에서는 society에 해당하는 네덜란드어 *genootschap*이 ‘모임 또는 집회’로, 1862년 에도말기부터

16) 야나부 아키라는 후쿠자와 유키치의 이런 선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렇게 사고가 벽에 부딪힌 지점에서 ‘독일개인’이라는 번역어가 등장했다. 이 단어로 인해 자신의 사고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해결되리라는 기대와 함께, 그는 이 낯선 단어에 앞날을 맡겼다. 앞서 서술한 ‘카세트 효과’에 기대를 건 것이다. ‘말’에는 문제가 없다. 현실이 문제일 뿐이다. ‘하는 식의 논리에 의해 언뜻 보기에는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바로 후쿠자와 유키치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일본 지식인들의 사고방식을 지배해온 번역적 연역논리에 의한 사고이다.”(柳父章 1982/2011: 52)

17) 『불화사림(佛和辭林)』 초판은 1887년에 출간되었으며, 이 초판본에는 individu에 대해 ‘일개물(一個物), 일개인(一個人)’으로, individualisme에 대해 ‘독립파(理)[獨立派(理)], 독립론(獨立論)’으로 풀이하고 있다.

18) 황준헌(黃遵憲)의 『일본잡사기(日本雜事記)』와 『일본국지(日本國志)』에서는 ‘사회(社會)’가 협회(association)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Masini 1994/2005: 274)

메이지초기까지 가장 널리 보급된 영어-일본어 대역사전인 『영화대역수진사서(英和對譯袖珍辭書)』에서는 ‘동료, 교제, 일치’로, 1867년 헵번식 로마자 표기로 유명한 헵번(James C. Hepburn)의 『화영어림집성(和英語林集成)』에서는 ‘동료, 패거리, 무리, 동아리’로 번역하고 있다. 이 번역어들은 하나같이 좁은 범위의 인간관계를 표현하는 번역어들임을 알 수 있다.

society에 이런 좁은 범위의 인간관계가 아닌 보다 심오한 의미가 있음을 알아차리고 이를 번역어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은 후쿠자와 유키치이다. 그는 저자와 출판년도 미상의 『경제론(Political Economy, for use in schools and for private instruction)』을 1868년에 번역한 『사양사정 외편(西洋事情 外篇)』을 번역하면서 ‘교제, 인간교제, 사귄, 나라, 세상사람’ 등과 같은 새로운 번역을 시도하였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이후에 출간한 『문명론의 개략(文明論之概略)』(1875)에서도 ‘교제’와 ‘인간교제’를 society에 대응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그가 사용한 ‘교제’는 ‘가족의 교제’, ‘군신의 교제’ 등과 같이 교제라는 본래의 뜻에서 벗어나 추상화되었다. ‘교제’는 번역어가 정착되는 한 과정을 보여준다. 야나부 아키라(柳父章 1982/2011: 27)는 일상어가 번역어로 정착되는 이런 과정에 대해 “일본인이 일상의 평범한 언어감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을 토대로 출발한다. 그런 다음 단어 사용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의미의 모순을 이끌어내고, 그 모순에 의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갔다”고 말했다.

‘사회’ 또는 ‘회사’를 society의 번역어로 다듬어 간 공로는 메이로쿠사(明六社)와 메이로쿠 잡지(明六雜誌)로 돌아갔다.¹⁹⁾ 메이로쿠사의 동인이었던 후쿠자와 유키치가 1876년에 쓴 계몽서 『학문의 권장』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19) 메이로쿠사(明六社)는 1874년 미국에서 귀국한 모리 아리노리의 건의를 계기로, 후쿠자와 유키치, 니시 아마네, 가토 히로유키, 나카무라 마사나오, 니시무라 시게키 등 당대 일류 지식인들이 참가하여 결집한 메이지 초기의 유일한 학술단체 혹은 학술결사였다. 메이로쿠 잡지(明六雜誌)를 발행하여 서양의 새로운 사상의 소개와 계몽을 위해 노력하는 등 일본의 근대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사군자(士君子)가 세상의 영예를 추구하지 않음은 충분히 칭송할 만하지만 영예를 추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먼저 영예의 성질을 분명히 밝혀야만 한다. 그 영예라는 것이 결국 허명(虛名)의 극도로서 병원의 번지르르한 현관, 약국의 여란한 간판과도 같다면 물론 그것을 멀리하고 피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사회의 인사(人事)는 전부 허(虛)로써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지덕은 꽃나무와 같고 사람의 영예와 덕망은 꽃과 같다.(柳父章 1982/2011: 31에서 재인용)

이 인용문에서 ‘사회’는 ‘세상’과 나란히 넓은 의미의 집단을 표현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사회’가 ‘세상’과 대립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문맥을 통해 판단할 때 ‘사회’는 추상적이며 좋은 의미이고 ‘세상’은 구체적인 나쁜 의미인 것이다.

오랫동안 사용해온 ‘세상’은 society의 유력한 번역어 후보였지만, 지나치게 일상적이고 부정적인 어감까지 풍기는 바람에 society의 번역어로 선택되지 못했다. 이에 비해 ‘사회’는 오래된 한자어이기는 하지만 일본인에게는 ‘사’와 ‘회’를 결합한 신조어나 다름없는 생소한 말이었다. 일본인들은 ‘세상’이라는 익숙한 말보다 ‘사회’라는 추억이 없는 말을 선택했다. 이 번역어는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단점과 의미의 곡해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을 동시에 갖고 있었다. 번역어의 탄생 과정에서 ‘사회’와 같이 의미가 불분명한 단어들이 선택되는 예는 흔하다. 밑그림이 없는 백지장과 같은 단어를 선택하고 그 단어의 운명을 미래에 맡기는 셈이다.

신 앞에서 평등하며 신에 대해 개별자인 개인에게 불가침의 권리가 있다고 하는 자각이 높아진 것은 르네상스 이후로, 이런 자각의 유무는 근대화를 재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이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양하지만, 개인은 사회와 분리될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 근대 사회는 개인과 개인들의 상호작용을 관할하는 질서·규범·제도의 복합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에 단수로도 복수로도 사용되던 ‘인(人)’이 있었고, ‘한 사람’이라는 의미의 일개인(一個人)이 있었고, 집체로서의 ‘백성(百姓)’이나 ‘인민(人民)’은 있었지만 개인과 사회는 당시까지도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개인’과 ‘사회’가 individual과 society의 번역어로 확정되기까지의 겪었던 어려움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²⁰⁾

IV. 맺음말

이상에서 중(中)과 서(西)의 언어접촉을 통해 형성된 ‘번역된 근대’의 양상을 개괄하고, ‘개인’과 ‘사회’의 예를 통해 현실이 아니라 있어야 하는 현실의 개념들이 번역어로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중국어의 역사에서 비슷한 예를 찾기 어려울 만큼 대규모로 유입된 근대 번역어들은 중국어 어휘체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나아가 중국 근대어가 형성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중국과 일본은 한자와 동아시아 공동문어를 기반으로 국경을 넘나들며 근대 번역어라는 새로운 어휘체계를 형성하였다. 근대 번역어는 중국어 어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학술 활동과 관련된 핵심 어휘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근대 번역어의 생산과 유통은 중국어 어휘체계를 혁신시켰고, 중국어 어휘체계의 혁신은 중국어 근대화

20) 근대 한국의 ‘개인’ 개념의 수용에 대해서는 하영선 외(2009)에 수록된 김석근의 글 「근대 한국의 ‘개인’ 개념 수용」을, ‘사회’ 개념의 수용에 대해서는 이경구 외(2012)에 수록된 박명규의 글 「근대 한국의 ‘사회’ 개념 수용과 문명론적 함의」를 각각 참고하라. 또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2004)에 수록된 박주원의 글 「『독립신문』과 근대적 ‘개인’, ‘사회’ 개념의 탄생」도 근대 한국의 ‘개인’과 ‘사회’ 개념의 수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어졌다. 어휘는 언어라는 집을 이루는 벽돌이다. 중국어는 근대 번역어를 재료로 삼아 낡은 집을 허물고 근대어라는 새 집을 준공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 근대 중국의 어휘 체계의 혁신과 언어개혁운동은 중국을 보편 제국에서 민족국가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추진되었고, 번역어를 통한 어휘 체계의 혁신과 언어개혁운동이 도달하고자 했던 최종 목적지는 국민국가의 언어로서의 ‘근대 중국어’의 탄생이었다.²¹⁾

“우리는 모두 그리스인이다.” 저널리스트 고종석의 이 도발적인 선언은 지금 우리 제도와 우리 일상생활, 우리 사상과 무엇보다 우리 언어의 본질적 부분이 그리스 (또는 이집트) 이래의 유럽 문화에서 비롯되었으며, 따라서 유럽 문화는 이미 우리의 ‘지배적 전통’이 되었다는 성찰과 고백을 함축하고 있다.²²⁾

21) 중국 근대어의 탄생이 근대 번역어의 힘만으로 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현재의 중국어는 두 차례의 아편전쟁(제1차 아편전쟁은 1840~1842년, 제2차 아편전쟁은 1856~1860년)이 벌어지던 19세기 중반의 중국어와는 크게 다르다. 당시 중국의 공식적인 문어는 문언(文言)이었고, 백화(白話)와 백화로 쓴 텍스트들은 언어의 위계질서에서 여전히 낮은 지위를 누렸다. 근대는 경전이 없는, 경전을 부정하는 시대이다. 경전의 권위를 기반으로 형성되고 소수 엘리트층 중심으로 유지되어 오던 공동문어는 근대라는 시공간과 양립하기 어렵다. 20세기 초에 진행된 동아시아 공동문어의 해체로 민족어 시대가 개막되고 동시에 언문일치 시대가 도래하였고, “나의 손은 나의 입을 쓴다(我手寫我口)”는 구호를 내걸고 진행되었던 20초의 백화문운동을 거치면서 공식적인 문어는 백화로 대체되었다. 공동문어를 버리고 정치 중심지의 구어를 표준어로 삼아 이를 대중 교육을 통해 보급하여 언어통일과 언문일치를 이룩하는 것이 근대 국민국가들이 시행하는 공통된 언어정책이다. 당시에도 베이징말을 기초로 형성된 표준어인 관화(官話)가 있었지만 현재의 중국 표준어인 보통화(普通話) 보급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된 20세기 중반 이후와 비교하면 그 세력은 미약하였고 지위는 불안하였다. 또 부국강병의 근대 국가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대중교육을 통해 ‘국민’들을 계몽시켜야 하고, 국민 계몽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배우기 쉽고, 쓰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문자의 모색이었다. 1958년 이후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금의 간화자는 이러한 문자개혁운동의 최종 산물이다.

22) 『인물과 사상』 제8권(1998년 10월)에 처음 발표되고, 『감염된 언어』(1999년)에 재수록되었던 이 글은 복거일의 책 『국제어 시대의 민족어』로 촉발된 ‘영어공용어화 논쟁’에서 복거일을 옹호 내지 변호하기 위해 쓰여 졌다. 국어의 어휘가 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으로 시작하는 헌법의 「전문」(前文, 1948년 제정, 1987년 개정)에 등장하는 ‘역사(歷史)·전통(傳統)·민주(民主)·이념(理念)·개혁(改革)·정의(正義)·인도(人道)·민족(民族)·사회(社會)·자유(自由)·질서(秩序)·정치(政治)·경제(經濟)·문화(文化)·권리(權利)·의무(義務)·국민(國民)·세계(世界)·평화(平和)·인류(人類)·행복(幸福)’ 등의 어휘를 이 어휘들의 모어(母語)인 유럽어로 치환한 채 읽었을 때의 생경함을 떠올려보라. 헌법 전문의 형태로 구체화된 현재 대한민국의 지배적 이념과 윤리가 그 원산지는 유럽이고 그 중개지는 중국과 일본이라는 사실을 체감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중국은 세계에서 역사가 가장 유구한 국가의 하나이다”로 시작하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의 「서언」(序言, 1954년 제정, 2003년 개정)에도 ‘역사(歷史)·문화(文化)·혁명(革命)·주권(主權)·영토(領土)·평등(平等)·경제(經濟)·제국(帝國)·주의(主義)·식민(植民)·민족(民族)·정의(正義)·인류(人類)·법률(法律)·정당(政黨)·사회(社會)·기업(企業)’ 등의 번역어가 핵심을 이룬다.

오랫동안 우리의 ‘지배적 전통’이 중국이었고 그 흔적이 아직도 뚜렷하다. 동아시아인의 지배적 이념과 윤리를 표현하는 이 번역어들의 기표(記標)는 한자이며, 서양의 개념들은 한자를 만나 크고 작은 의미의 충돌과 혼용을 빚어왔다. 번역되는 말이 고유의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다양한 의미의 변주를 겪듯이, 번역된 말 또한 번역되는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획득해왔다. 요컨대 이 번역어들은 유럽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중국어이기도 한다.

번역어들이 표현하는 개념과 윤리가 지배적인 것이며 번역어 역시 우리

래어에 감염되어 있다고 개탄하고, 국어의 문체가 번역문투에 감염돼 있다고 지탄하는 언어민족주의자들 또는 언어순결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 고종석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문화어휘’의 대부분은 일본인들이 서양말의 개념을 옮겨 만든 한자어가 19세기 말 이래 수입된 것이며, 한국어 글말의 탄생과 발전, 정착 그 자체가 번역의 과정이라는 논리로 맞선다. 또 ‘감염’과 ‘혼탁’과 ‘불순함’이야말로 언어의 본질이며 생명력의 원천이라고 주장한다.

언어생활의 지배적 부분이 되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동아시아의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중국인이면서 그리스인인 ‘중국계 그리스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영안(2002), 『우리에게 철학은 무엇인가』, 서울: 궁리.
- 고종석(1999), 『감염된 언어』, 서울: 개마고원.
- 다케다 마사야, 서은숙 역(2004), 『창힐의 향연』, 서울 : 이산.
- 리디아 리우, 민정기 역(2005), 『언어횡단적 실천』, 서울: 소명.
- 마루야마 마사오·가토 슈이치, 임성모 역(2000), 『번역과 일본의 근대』, 서울: 이산.
- 야나부 아키라, 김옥희(2011), 『번역어의 성립』, 서울: 마음산책.
- 양세욱(2009), 「근대 번역어와 중국어 어휘체계의 혁신」, 『코기토』 65,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_____ (2011), 「근대 중국의 언어개혁운동과 내셔널리즘」, 『중국언어연구』 37, 한국 중국언어학회.
- 양일모(2008), 『옌푸(嚴復): 중국의 근대성과 서양 사상』, 파주: 태학사.
- 옌푸, 양일모·이종민·강중기 역(2008), 『천연론』, 서울: 소명출판.
- 이경구 외(2012), 『개념의 번역과 창조』, 파주: 돌베개.
- 이연숙, 고영진·임경화 역(2006), 『국어라는 사상 - 근대 일본의 언어 인식』, 서울: 소명출판.
- 이종철(2008), 『중국 불경의 탄생』, 파주: 창비.
-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2004), 『근대계몽기 지식 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 서울: 소명출판.
- 정하미(2005), 『일본의 서양문화 수용사』, 서울: 살림출판사.
- 조너선 D. 스펜스, 주원준 역(1999), 『마테오 리치, 기억의 궁전』, 서울: 이산.
- 최경옥(2005), 『번역과 일본의 근대』, 서울: 살림.
- _____ (2007), 「메이지기의 번역어 성립과 한국 수용에 대하여: [個人]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 61, 한국일어일문학회.
- _____ (2009), 「메이지시기의 번역어 성립과 한국 수용」, 『코기토』 65,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코모리 요이치, 정선태 역(2003), 『일본어의 근대 - 근대 국민국가와 ‘국어’의 발견』, 서울: 소명출판.
- 토마스 헉슬리, 이종민 역(2012), 『진화와 윤리』, 부산: 산지니.

페데리코 마시니, 이정재 역(2005), 『근대 중국의 언어와 역사』, 서울: 소명.
하영선 외(2009), 『근대한국의 사회과학 개념 형성사』, 파주: 창비.
허성도(1998), 『한자 사용빈도 조사』, 연구보고서.
황경식(2012), 『덕윤리의 현대적 의의』, 서울: 아카넷.

史有爲(2004), 『外來詞-異文化的使者』,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沈國威(2010), 『近代中日詞彙交流研究』, 北京: 中華書局.
馮天瑜(2004), 『新語探源－中西日文化互動與近代漢字述語生成』, 北京: 中華書局.
森岡健二(1969), 『近代語の成立』, 東京: 明治書院.
井上哲次郎 외(1884), 『改正增補 哲學字彙』, 東京: 東洋館.

Harbsmeier, Christoph(1998), *Science and Civilization in China Vol. VII:1, Language and Logic*,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Abstract】

Modern East Asia understood the Western civilization and constructed new order of modernity by the means of translation. The problem how to translate and popularize new concepts containing the Western study, thought and institution was an urgent task given to the then intellect of East Asia and translation was the important process and manner forming modernity in East Asia. Modernity of East Asia was ‘translated modernity’ in this way. This paper tries to explore the landscape of East Asian modernity as ‘translated modernity’ by the way how ‘individual’ and ‘society’ were translated into ‘個人’ and ‘社會’ and these concepts were accepted by East Asia. Translation of the Western concepts was accompanied by double difficulty. The fact that there was no reliable dictionary was the first problem, but the more fundamental difficulty came from the fact that the concept or phenomenon to be translated did not exist then, that is it was not the ‘existing’ reality but the reality ‘ought to be exist’ that was the object to be translated. We can examine the variation of meaning made by translated loans which objects were not the ‘existing’ reality but the reality ‘ought to be exist’ through the two example, i.e. ‘個人’ and ‘社會’.

【Keywords】 translated modern, translated loan, east Asia, language contact, individual, society

논문 투고일: 2012. 10. 09

심사 완료일: 2012. 10. 19

게재 확정일: 2012. 10. 22

